제24호<February 2016>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2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지난해 2천여개 국내 화장품, 중국 위생허가 획득('16.2.19)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된다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08

싱가포르 내 한류 K-Beauty

법령정보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회원사뉴스 23

화장품 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지난해 2천여개 국내 화장품, 중국 위생허가 획득('16.2.19)

- KTR 상하이법인이 중국 CFDA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획득한 화장품수는 1만8,311개로 한국 제품은 10~13%로 추정됨
- 특히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위생허가를 받은 전체 화장품수는 2012년 1만3,089개, 2013년 1만7,441개, 2014년 1만4,935개, 2015년 1만8,311개로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링크: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70934/cat/10/page/1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된다('16.2.24)

-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는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화장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임
-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총리령으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다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했음

-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602240833185369

염색약 색소 늘리고 화장품 용기규제 푼다('16.2.2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 예정된 색소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을 통해 모발용 염색약 색소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 예정된 색소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을 통해 모발용 염색약 색소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 관련링크: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2/e20160223170107142820.htm

주형환 산업부장관 "中 비관세장벽·검역문제 등 해소.. 화장품·유아용품 등 수출 늘릴 것"('16.2.22)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3월 17~18일 중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비관세장벽, 검역, 품질검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주력품목의 낙폭을 줄이고 새로 등장하는 유망품목인 화장품, 유아용품, 농·식품 등을 집중 지원해 수출 저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602221728406251

"화장품 對中 수출 대외변수에 취약하다"('16.2.25)

- 국내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중국발 'K-뷰티'가 각종 변수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9000개 넘는 국내 화장품 업체 중 정식 유통 채널을 갖춘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대중 수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중국 정부가 보따리상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위생허가 취득에 까다롭게 나선다면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관련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292326612554128&DCD=A00302&OutLnkChk=Y

유커 매출 열쇠는 '한방'…한방 샴푸·화장품 매출 급성장('16.2.26)

- 내 '한방'(韓方) 제품이 우수한 효능의 한방 원료를 활용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방 화장품과 샴푸는 유커에게 한국 방문 시 꼭 사야 할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업계는 한방 화장품이 자연에서 얻은 한방 원료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적용해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식되면서 유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114800003.HTML?input=1195m

오송 화장품 규제프리존, 큰 틀에서 봐야 한다('16.2.24)

- 화장품 규제프리존은 화장품을 제조해 팔거나 표시·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여기는 부분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철폐하는 곳이며,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임
- 오송 화장품 규제프리존은 큰 틀에서 봐야 하며, 동네 미용실과 경쟁할지 모른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임

- 관련링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406

LG생건 '후' 지난해 면세점 화장품브랜드 1위 등극('16.2.24)

- 최근 관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생활건강 '후'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가 각각 브랜드별 매출 1, 2위를 기록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루이비통'을 3위로 밀어냈으며, 또한 아모레퍼시픽 '헤라'(3위), '라네즈'(7위)가 전체 매출 상위 10위에 진입했음
- 이밖에 국내 화장품기업도 선전했으며, 잇츠스킨은 롯데잠실점(263억5,400만원), 롯데제주점(21억6,700만원), 동화면세점(60억8,500만원), SK네트웍스워커힐점(52억6,700만원), 호텔신라제주점(124억4,600만원) 등 5개 면세점에서 523억1,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0981/cat/10/page/1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성공해법은? ('16.2.25)

- 코스인(대표 길기우)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공동주관으로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성공해법'을 주제로 베트남 화장품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오는 3월 18일 코엑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제5강의실에서 실시함
- 이번 세미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해외 화장품 유망시장 중 중국 다음으로 선정된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성공전략에 대해서 실시되며, 세미나 대상은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화장품업체 대표와 임원, 해외 진출, 수출업무 책임자와 담당자, 수출 예정 업체 관계자들임

- 관련링크:
http://www.etnews.com/20160225000495

오송 화장품 규제프리존 매도 말라 ('16.2.23)

- 충북 오송에 들어설 예정인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이 시행단계 이전부터 뭇매를 맞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미용업 진출 허가로 동네 미용실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섣부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 화장품·뷰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충북도로서는 벌써부터 불거지는 부정적 여론에 난감한 입장임

- 관련링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121

국내외 정보

☐ **European Commission, Chloroacetamide 사용규제 개정(안)** (2016.2.12)

- EU집행위원회에서의 규정 초안은 사용가능 보존제 목록(Annex V)에서 클로로아세트아미드(Chloroacetamide)를 삭제하고,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물질 목록(Annex II)에 추가하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사용이 금지된 원료임

- 채택 예정시기는 2016년 2/3분기이며, 시행 예정시기는 EU 관보 게재일자로부터 20일 후임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아래의 항목이 Annex II에 추가됩니다.

x	2-Chloroacetamide	79-07-2	201-174-2

(2) Annex V, 41번 항목이 삭제됩니다.

- 자료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
-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cia.or.kr/_Document/News/NEWS_020V.asp?gPage=&SearchField=&SearchValue=&OrderField=&OrderValue=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싱가포르 내 한류 K-Beauty

- 한류 성숙시장 싱가포르에서 꾸준히 부는 한류 열풍 -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

□ K-Beauty 진출 현황

○ 설화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아세안 지역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 싱가포르에 개장

- 2015년 7월 1일, 아모레 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캐피톨 피아짜(Capitol Piazza)에 싱가포르 내 5번째 매장이자 아세안 지역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함.
- 캐피톨 피아짜는 싱가포르의 6성급 호텔 The Patina 내에 위치한 럭셔리 쇼핑몰로 설화수는 이 곳에 매장을 개장함에 따라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짐.
- 아모레 퍼시픽 보도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시장의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0%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전체의 브랜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Capitol Piazza에 입점한 설화수 매장 모습

자료원: 설화수 홈페이지

○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싱가포르 진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 The 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수는 5년 전 15개에서 2015년 6월 기준 50여 개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

싱가포르 내 대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진출 현황(2015년 12월 기준)

기업	브랜드	매장수
아모레 퍼시픽	라네즈	17개
	에뛰드하우스	16개
	이니스프리	6개
	설화수	5개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22개
	빌리프	5개
	VDL	5개
	후	1개
에이블씨엔씨	미샤	9개
스킨푸드	스킨푸드	2개

자료원: The Straits Times 및 각 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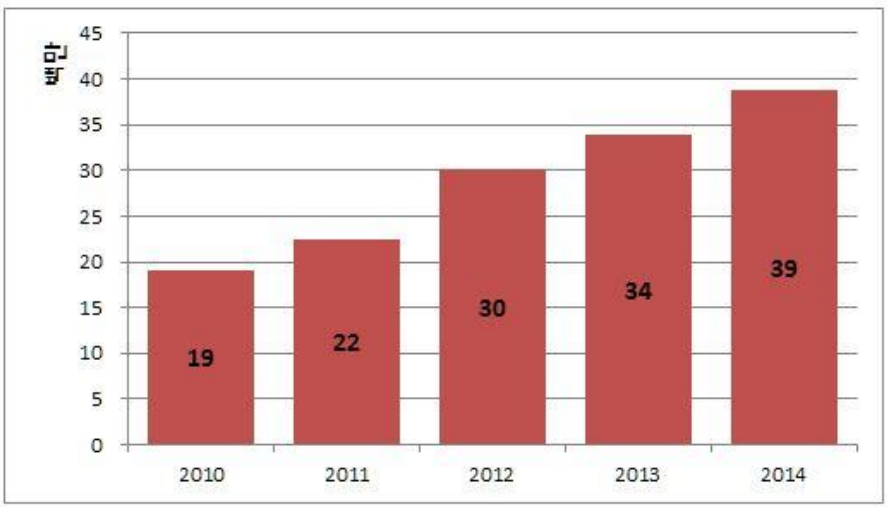
- 또한 2014년 10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한국의 신라 면세점이 진출하면서 려, 리엔케이, 지베르니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들어서고 있음.

○ 한국 화장품의 대싱가포르 수출, 연평균 20% 성장률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 중

- HS Code 3304 기준, 한국 화장품 대싱가포르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20%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로, 2014년에 3900만 달러를 달성함. 특히 2010년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수출액 1900만 달러에서 2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함.

한국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대싱가포르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관세청

□ K-Beauty 성공 포인트

○ 한류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싱가포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류 스타들의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메이크업(물광 메이크업)을 따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음.

싱가포르 현지 신문에 실린 라네즈 전면 광고(2015.10.27)

자료원: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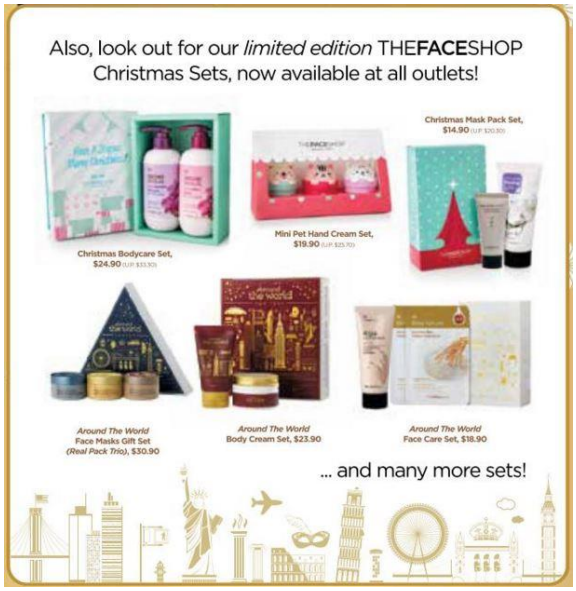
○ 동양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으로 아시아 소비자 공략

-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이 동양인 피부 톤에 맞아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습·미백·탄력 등 동양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을 적절히 반영한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정기적인 신제품 및 한정판 출시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

- The Straits Times에 실린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 대비 높은 신제품 출시 빈도로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또한 차별화된 디자인 및 제품 포장으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면서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음.

싱가포르 현지 신문에 실린 더페이스샵 크리스마스 한정판 광고(2015.12.4)



자료원: TODAY

○ 해외 브랜드 대비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의 경우 해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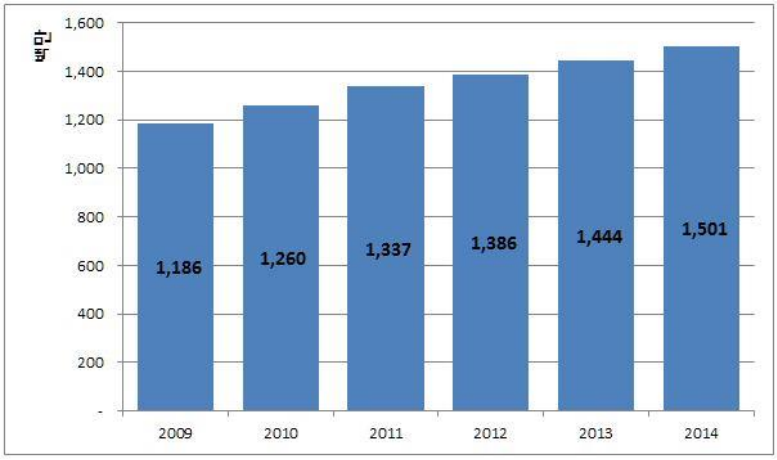
□ 싱가포르 현지 뷰티 시장 현황

○ 싱가포르 뷰티 시장 규모, 연평균 4%씩 꾸준히 성장 중

-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뷰티 시장(Beauty and Personal Care)은 연평균 4.8%씩 꾸준히 성장 중이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4% 성장한 15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함.

싱가포르 뷰티시장 규모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자료원: 유로모니터

○ 싱가포르 뷰티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성장률은 현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됨.

-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를 유지하며 약 16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뷰티시장의 유통 채널은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판매·홈쇼핑·인터넷 쇼핑 등 기타 채널의 비중은 약 8%에 불과함.

○ 인터넷의 발달, 해외 여행의 증가, 뷰티 블로거의 등장 등으로 뷰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다양한 해외 브랜드와 제품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편임.

□ 시사점

○ 싱가포르 현지 뷰티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외 브랜드들이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 따라서 단순히 한류에 의지한 진출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보습·미백·탄력 등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은 물론, 한 가지 제품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멀티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싱가포르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함.

○ 싱가포르 뷰티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 전체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므로 유동성이 높고 쇼핑인구가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싱가포르 공중파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예능이 방송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만 방송하는 전문 케이블 채널도 있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높은 편임. 따라서 PPL에 참여하거나 한류스타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The Straits Times, TODAY, 관련 기업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법령정보

Korea Cosmetic Association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법률 제14027호, 2016.02.03., 시행 2017.02.04.)

-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제3조, 시행 2016.02.03.)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제외함(제3조, 시행 2016.02.03.)
-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표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제5조)
-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 하도록 함(제10조)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15조의2)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0조)

※ 상기 법률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의 해당 제조업자의 폐업 및 화장품 포장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6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orea Cosmetic Association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우리 협회는 2월 18일(목)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06개사 112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3월 중에는 3월 15일(화)『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3월 24일 사후관리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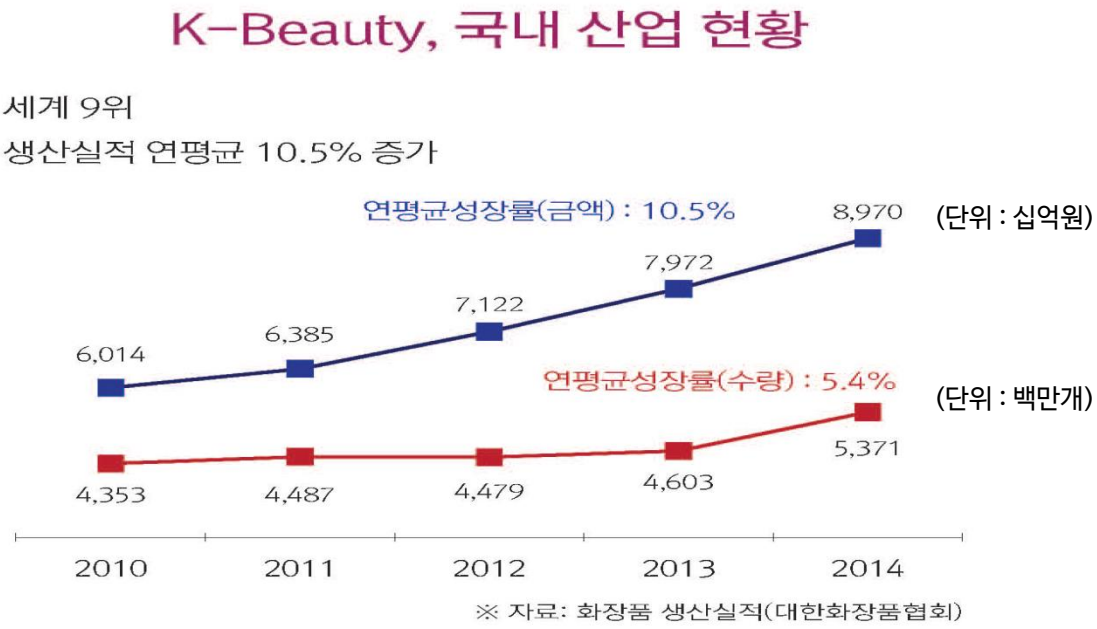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 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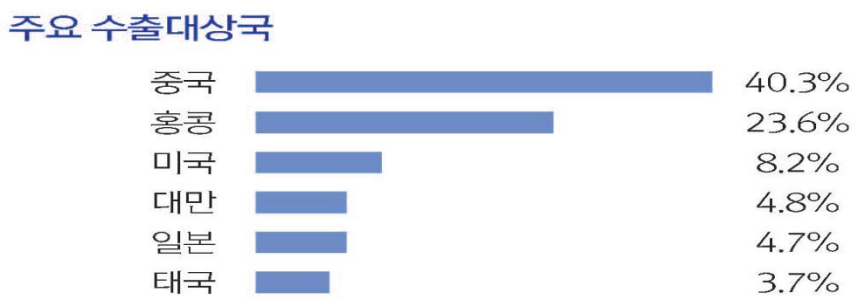
2016년 전시회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in-cosmetics Europe 2016	2016.04.12~04.14	프랑스(파리)	모집중
2016코스모뷰티베트남전시회	2016.04.21~04.23	베트남(호치민)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2016.05.18~05.20	중국(상해)	모집완료
2016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6.09.04~09.06	중국(광주)	
2016홍콩화장품미용박람회	2016.11.09~11.11	홍콩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미래비전

☐ K-Beauty, 국내 산업 현황





☐K-Beauty, 국내 수출입 현황

K-Beauty, 국내 수출입 현황

- 전세계 133개국으로 수출
- 화장품 수출액 29억불(전년 대비 55.4% 증가)
- 전세계에서 수출액 순위 6위

한국산 화장품,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2위"

- 세계 2위 규모
- 연평균 10% 성장세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프랑스	9억 2146만	25
2	한국	6억 5648만	18
3	일본	5억 4064만	14
4	미국	5억 3744만	14
5	영국	1억 7923만	5

☐K-Beauty , 소비자 현황

K-Beauty, 소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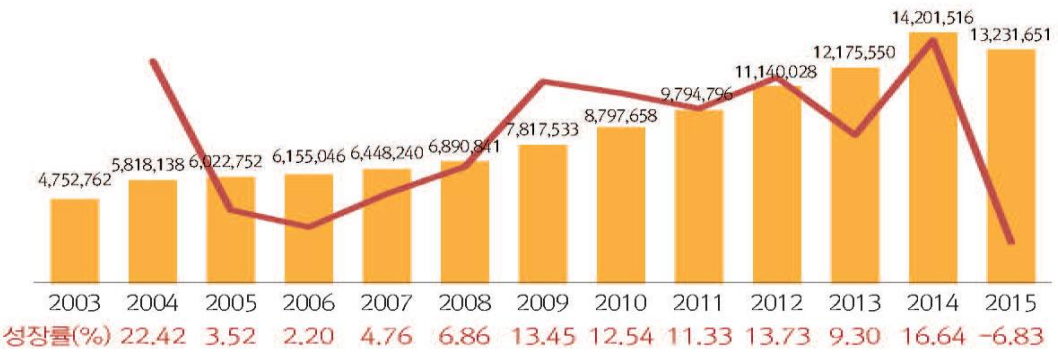
2014년 외래 관광객의 주요 쇼핑품목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쇼핑 품목 '향수/화장품'(59.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의류'(44.6%), '식료품'(37.4%), '신발류'(14.3%) 등의 순으로 조사 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래 관광객 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 9월, 메르스의 여파로 관광객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함



※출처 :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아래 자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신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정부3.0 특허청

01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개선"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료 반환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심판청구시 보정한 건은 제외),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 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	'16.5.예정 심판정책과 042-481-8206
디자인권 포기시 등록료 반환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 중 '디자인권의 포기 일자가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	'16.5.예정 등록과 042-481-5233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디자인권 회복 요건 완화 및 신청료 인하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실시중인'을 삭제하여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 불필요)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개월 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등록료의 3배를 내야 소멸한 권리 회복	'16.5.예정 등록과 042-481-5233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동적화상디자인 도면제출 요건 완화	동적화상디자인(동영상 형식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화상의 변화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도면번호를 기재하도록 도면 제출요건 완화 * 종전에는 동작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도면번호 기재	'16.1.시행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353
영상구술 심리시스템 활용대상 확대	서울-대전간 당사자계심판에만 활용되던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모든 심판사건의 설명회 및 심판관 면담으로 확대	'16.1.시행 심판정책과 042-481-5846
심판 관련 각종 통지서 안내문 정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관련 통지서를 분석하여 추가안내 필요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쉬운 문구로 개선	'16.3.시행 심판정책과 042-481-5918
모바일 수수료 고지 및 납부 서비스	특허 수수료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고 모바일 지로(GIRO)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 개시	'16.1.시행 정보개발과 042-481-5103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중인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과목을 종전 1과목에서 5과목으로 추가 개설	'16.1.시행 교육기획과 042-601-4311

02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상표출원 지원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인이 상표출원단계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16.1.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7
「Global Hit 365」 프로젝트	중소 · 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IP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 · 디자인 · 특허를 융합한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16년 IP-R&D 전략지원 내 신규 사업 43개 과제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미활용특허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연의 우수발명 등 총 56개 과제에 대하여 최적의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해외권리 확보 전략 수립 지원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931
표준특허 인큐베이팅지원	표준특허전문가, 변리사, 국제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중소 · 중견기업에 찾아가 R&D 방향설정, 표준안-특허 연계 설계 등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중 신규 사업 6개 과제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03 "지식재산권 보호 · 활용 지원제도 확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1670-1279) 개설 · 운영	'15.12.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23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보급	중소기업 영업비밀 · 기술 보호를 위해 유상으로 보급하던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전액 무료로 보급하고 운용방법 교육까지 무상 진행	'16.7.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61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개선	영업비밀 관리수준 분석과 진단에 머물던 영업비밀보호컨설팅 제도를 분석 · 진단 ·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	'16.6.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61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공공기관 미활용 보유특허 10개에 대한 특허분석 등을 통해 특허관리 등급을 진단하고 기관 · 사업별 관리 · 활용 전략 컨설팅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931
부정경쟁행위 조사발동요건 강화 및 규제 완화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건을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강화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일몰 규정 신설	'16.1.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회원사 뉴스

Korea Cosmetic Association

신규 회원사 소개

㈜더우주

회사명: ㈜더우주
대표자명 : 최영욱
설립일자 : 2015년10월
종업원수 : 19명
품목 및 브랜드 : 더우주
2015년 매출액 : 94백만원
자 본 금 : 50억
유통채널 : 시판
웹사이트 : www.oozoo.co.kr

회사소개

2015년 10월 설립,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이스트, 팬엔터등 최고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한류 화장품을 선도할 신생 화장품 회사입니다.

기업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1층
- 물류창고: 서울특별시 양평로 28다길 3 제 1호

신규 회원사 소개

(주) 본앙쥬코리아

회 사 명 : 본앙쥬코리아
대표자명 : 정연식
설립일자 : 2014. 12. 15.
종업원수 : 7명
품목 및 브랜드 : 본앙쥬 마스크팩, 세제
2015년 매출액 : 4억원
자 본 금 : 2억원
유통채널 : 시판, 방판
웹사이트 : www.bonangekorea.com
연 락 처 : 010-5378-2856

회사소개

안녕하세요. 저희 본앙쥬코리아를 소개합니다. 저희 본앙쥬코리아는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로써,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유아제품과 액상세제, 섬유유연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마스크팩은 중국으로 수출되어 나가고, 유아제품은 인터넷망을 통해, 액상세제, 섬유유연제는 지방의 모기업으로 내수되어 나갑니다. 현재 옥션과 우리샵, 쿠팡 등의 싸이트에 등록된 제품수만 20여가지 되며,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판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계속 내고 있고, ISO 9001 등록, 원산지 등록을 이미 해 놓고, 중국위생허가와 한국무역협회 등록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등을 통해 OEM광고 및 홈페이지 광고도 매일 하고 있으며, 신제품도 계속 만들어서, 현재 “청난수”, “OTU”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